



삐

von Martin Baltscheit

übersetzt von Min-Jung Ramm



새가 둥지에서 떨어 졌어요. 삐!
들판위에. 호숫가 밑. 개구리 옆에.
개굴! 개구리들이 말했어요.
삐! 새가 말했어요.
개굴! 개굴! 개굴! 삐! 삐! 삐!



개구리들이 생각 했어요: 파리라고 하기에게는 너무 크고,
황새라고 하기에게는 너무 작아.
새가 생각했어요: 애벌레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엄마라고
하기엔 노래를 너무 못불러.
작은 새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줬어요. 삐!
하지만 개구리들은 알아 듣지 못했어요. 개굴! 개굴! 개굴!
그리고 새는 개구리의 말을 알아 듣지 못했어요. 삐! 삐! 삐!



새가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개굴!
그러자 개구리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들은 이런 개구리를 본
적이 없었어요. 이런 개구리는 존재 하지 않아요.
개구리 중 한 마리가 엉뚱한 소리를 냈어요. 삐!
그리고 다른 개구리들도 따라 했어요. 삐! 삐!
그러자 새도 따라 했어요. 개굴! 개굴!
개구리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삐! 삐! 삐!
새도 노래를 불렀어요. 개굴! 개굴! 개굴! 개굴!



황새는 뒤섞인 소리를 들었어요. 황새는 날개를 크게 펼치며 앉았고, 배가 고팠어요.

그러나 개구리들은 새처럼 노래 부르고, 새는 개구리처럼 개굴 거렸어요 .

황새는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개구리들이 환호했어요. 오늘부터 황새가 오면 노래를 부를거야.

삐! 삐! 삐! 그리고 그들은 다른 개구리들에게 말할려고 했어요.

삐! 삐! 삐! 그렇게 그들은 모두 가버렸어요.



작은 새가 들판위에 혼자 앉아 있어요. 개굴 나무에는 나뭇잎이 풍성. 들판에는 그림자가 가득. 들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꿈지력. 꿈지력. 흥흥. 개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개굴! 새가 말했어요. 멍! 개가 말했어요.

그리고 새개구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흥흥. 흥흥. 꿈지력. 꿈지력... 그는 가버렸어요.



고양이는 작은 새를 절실히 필요로 했어요. 같이 놀기에는: 공놀이. 킥쿠션. 쿠션인형.

고양이는 저글링을 좋아해요. 두 개, 세 개 또는 네 개의 발로. 충분히 놀고 나면 배도 고프고 기지개를 펴고 싶어해요.

멍! 작은 새가 말했어요.

야옹! 고양이는 비명을 지르며 나무 위로 뛰어올라 갔어요. 멍! 새는 다시 소리를 내면서 으르릉 거렸어요.

멍! 멍! 멍!



오리와 백조도 날아가 버리고 고슴도치는 움추렸어요. 오직 달팽이 한마리 만이 목표를 향해 기어갔어요. 느리게 작은 새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살려두기로.



꼬끼오! 누군가 도와 달라고 소리쳤어요. 꼬끼오! 아주 다급하게 들렸어요.

새가 달렸어요. 날았어요. (거의 다와서) 꼬끼오! 거름 위에 수탉이 서 있는데 그의 머리에 불이 붙은 거 같았어요.

삐! 삐! 삐!

수탉이 웃었어요. 삐? 삐? 삐?

수탉은 붉은 머리를 세우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삐삐삐... 그게 말이야?

꼬끼오오오오오!!! 그런 다음 수탉은 아침을 먹으러 갔어요.



햇살은 엄마처럼 따뜻했어요. 작은 새는 어디로 가야할지 몰랐어요. 그는 여기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세상은 가보지 않은 곳들로 가득 차 있어요.

개굴! 새가 소리를 냈어요. 멍! 그리고: 야옹. 아무도 오지 않자 그는 “꼬끼오!” 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세상은 아무 색깔이 없었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했어요. 친구가 없는 지구.

개굴! 멍! 야옹! 개굴! 멍! 야옹! 개굴! 멍! 야옹!



당나귀가 그 소리를 듣고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당나귀는 한 가지 소리만 낼 수 있어요. 그 속에는 딱 한 단어만 있어요: 이 - 오!

새는 당나귀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이—오!

새는 이상한 동물을 보고 눈으로 물었어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오! 당나귀가 말했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아시나요? 이—오! 당나귀가 말했어요. 나도 같이 갈 수 있나요?



이—오! 당나귀는 큰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목이 말라 강으로 내려갔어요.
작은 새가 그를 따라갔어요. 당나귀는 그것에 대해 기뻐했어요. 당나귀는 다른 언어를 좋아했어요.
삐. 삐. 멍. 멍. 이 - 오!
삐. 삐. 멍. 멍. 짹! 짹!
작은 새가 멈췄어요. 당나귀도 또 다른 새가 울었어요!
호숫가 밑에서. 개구리들 바로 옆에. 그는 누구일까요?



„멍“



끝